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영미학과	이름	김XX
파견국가	미국	파견도시	Shippensburg
파견대학	Shippensburg university	파견기간	10개월(2학기)
귀국여부	귀국함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펜실베니아 시골에 위치해 있어서 조용하고 한적합니다. 강의하는 건물들은 오래된 건물이 많지만 유지보수가 잘 되어 있고 기숙사 건물들은 비교적 신축이라 지내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p>
2018-2학기 수업	<p>Introduction to theatre arts: 연극에 대한 기초적인 역사에 대해 배우고 그리스 비극, 프랑스 고전 연극의 대본을 보고 직접 연기해 보는 수업. 학기동안 총 5번 퀴즈를 보고 그 점수로 성적을 주는데 4번째 시험까지 보고 평균점수 90점 이상 받은 학생은 마지막 퀴즈를 면제해 주어서 좋았습니다. 학생들 앞에서 연극하는 과제가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면 추천합니다.</p> <p>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studies: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과 조사하는 방법을 배우는 수업. 매 수업전에 읽어야 하는 자료가 거의 50페이지씩 됐고 오래된 책들로 수업을 해서 이 자료들이 과연 현재의 상황들과 부합하는지 조금 의문스러웠습니다. 시험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둘 다 보는데 시험보다는 매 수업마다 해야하는 발표가 더 비중이 컸던걸로 기억합니다. 학습량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아서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p> <p>Introduction to academic writing: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작문수업. 난이도도 쉬웠고 수업 도우미랑 일주일에 한번씩 미팅을 가져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시험은 보지 않고 작문과제로 성적을 산출합니다.</p>

	<p>Introduction to women & gender studies: 여성학과 젠더론에 대해 배우는 수업. 두시간 반 수업인데 이론보다는 토론을 중심으로 해서 시험공부는 수업 외 시간에 해야 하는 점이 좀 번거로웠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난이도는 별로 어렵지 않아서 추천합니다.</p>
<p>2019-1학기 수업</p>	<p>Historical foundation of global cultures: 기초 세계사 수업. 들었던 수업 중에 가장 학습량과 과제 량이 많았던 수업입니다. 매 시간 수업 자료를 읽고 작문과 수업시간에 발표할 내용을 준비해야 하고 학기동안 750자 분량 레포트를 제출해야 하는데 교수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다시 써야 해서 같이 듣는 미국 학생들도 힘들어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다만 같은 과목을 가르치는 다른 교수님들은 다른 방식으로 수업한다고 들었습니다. 들어야 하면 Tulchin 교수님은 피해서 듣는걸 추천합니다.</p> <p>Introduction to sociology: 기초 사회학을 배우는 수업. 거의 이론수업 중심이고 시험은 보지않고 학기동안 4번 보는 퀴즈로 성적 산출합니다. 교수님께서 날씨 좋으면 나가서 놀라고 휴강 자주 해 주셔서 좋았습니다.</p> <p>Classic piano level 1: 피아노 수업. 피아노를 쳐본적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악보 읽는법부터 가르쳐주시고 원하는 피아노곡 하나를 골라서 학기 말에 발표회를 합니다. 시험은 총 중간고사 기말고사 총 두번이고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p> <p>Basic drawing: 미술 전공 학생을 위한 기초 그림 수업. 전 비전공자라서 좀 걱정했는데 미술 전공이 아닌데도 듣는 학생이 많고, 학생 개별로 학기동안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보고 성적을 산출하는 방식이어서 그림실력에 대한 걱정은 크게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p>
<p>프로그램 운영</p>	<p>교환 프로그램 담당자 Mary가 교환학생 대상 이벤트를 2~3회정도 주관하고 international student organization에서도 할로윈 이벤트, 영화관 trip, 볼링trip 같은 이벤트를 종종 열어서 참여했습니다.</p>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날씨는 한국과 거의 비슷합니다.
안전	제가 학교를 다니는 동안은 별일이 없었는데 얼마전에 (2022년 8월) 학교 근처에서 active shooter가 나타나서 학교 전체 락다운 한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학교 부지 내에만 있으면 크게 위험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숙소	<p><i>학교기숙사() 홈스테이 () 외부 숙소() 기타()</i> <i>기숙사 이름,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i></p> <p>저는 한학기는 기숙사 Kieffer hall에서 지냈는데 비교적 최근에 지은 건물이라 상태가 좋았습니다. 통금은 없고 2인 1실에 화장실 샤워실 하나씩 있고 1층에 공유 주방이 있었습니다.</p> <p>나머지 한 학기는 stone ridge commons라는 외부 기숙사에 있었는데 부지에서 걸어서 3분정도 거리라서 통학하기 편했습니다. 두 명에서 거실과 주방을 공유하는 방식입니다.</p>
식사	<p>Meal plan에 가입하면 dining hall에서 식사할 수 있고, 학교 내에 프랜차이즈 식당 아무 곳에서나 한끼에 6.40달러 만큼 차감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dining hall은 별로 맛이 없어서 대부분 학생들이 CUB건물에 있는 패스트푸드를 주로 먹었습니다.</p> <p>버스를 타면 월마트에 갈 수 있지만 배차가 적고 식료품이 싼 편이 아니라서 직접 요리 하는 건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p>
교통	<p>ship학생이면 무료로 탈 수 있는 주요 시내를 돌아다니는 버스가 있긴 하지만 배차가 거의 40분 간격이라 한번 놓치면 기다리는데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ride를 해달라고 많이 부탁해서 돌아다녔습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270만원	왕복 항공권
Fees	약 350만원	시설이용료 등 각종 fee 종합
보험료	64만원	국내 유학생 보험
숙소	약 800만원	기숙사 4000달러 외부기숙사 3200달러
식비	약 300만원	밀플랜+외식
교통비	약 80만원	LA왕복 항공권, 기차
책값	약 25만원	한학기당 대략 100달러 전후
기타1	약 80만원	여행 교통비 LA 왕복 항공권, 기차 등
기타2	약 50만원	여행 숙소비
합계	약 2019만원	(환율에 따라 차이 있을 수 있음)

5. 출국 전 준비사항

등록금 제외 내야하는 fee가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약 400만원 전후)

학교 주변에 우버나 리프트 같은 택시 서비스가 없어서 버스 노선이 없는 곳은 가기가 힘듭니다.(Ex: Lancaster등 주변 도시)

외부 기숙사에 살면 교내 기숙사보다 싸기는 하지만 학교 내부 행사나 이벤트 같은 정보들을 놓치기 쉬워서 금전적으로 부담이 가능하면 교내 기숙사를 추천합니다.

교내에 아시아계 학생들이 적은 편이라 처음에는 좀 걱정했는데 막상 다녀보면 다들 친절하게 대해줘서 인종차별 관련 문제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미국에서만 경험해 볼 수 있는 추수감사절, 할로윈, 크리스마스 문화를 직접 참여해보고 느낄 수 있어서 무척 좋았습니다. 저는 단기 방학동안 여행을 자주 다녔는데, 평소 상상만 했던 관광지들을 직접 여행하는 기억은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독일이나 프랑스같이 다른 나라에서 오는 교환학생들도 많아서 다양한 문화권의 친구들과 교류하면서 식견이 많이 넓어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살려서 앞으로도 타 문화권 친구들과 열린 마음으로 교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학생 신분으로 다른 나라에서 살아 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경험이니 기회가 된다면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Washington DC 여행



그리피스 천문대



LA The Broad 미술관



LA Venice Beach



LA Venice canals



New York Metropolitan